



# 나누는 마음이 아우러진 '동래의 지킴이'

## 부산 온천 고려당, '베푼 만큼 받기' 30년

'대를 잇는 사람들' 취재 팀이 부산 동래를 찾았다.

빡빡한 일정 탓에 유명하다는 동래 온천에 몸을 담가보지도 못했지만 온천처럼 따뜻한 느낌을 듬뿍 적셨다. 선대의 선행 때문에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져 불을 지핀 연탄가마. 그렇게 시작된 '온천 고려당'은 대를 이어 가며 '동래의 지킴이'로서 고장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베푼 만큼 받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선대의 덕행은 3대를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온천 고려당 30년의 앨범을 들춰본다.



남편은 경찰 공무원이었다. 5, 60년대, 온 나라가 허덕이던 시절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했다.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선 내 입이 급했다. 남을 생각하는 건 차라리 사치였다. 그러나 남편은 달랐다. 동래 토박이였기에 이웃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그는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를 선선히 털었다. 그렇지만 자기 가족을 위해 떼어 놓 묶은 없었다.

아내는 자기 입을 생각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을 몸이 달도록 안타깝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가족의 생계가 막막했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순간 위기감이 엄습했다. 남편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가족의 생계

가 급했다. 그는 직접 나섰다. 가족이 살던 경찰 공무원 관사 옆에 연탄 가마를 설치하고 '봉지빵'을 만들어 동네 가게에 팔기 시작했다. 연탄가마에 1남6녀의 생계를 건 '온천 고려당'이 시작된 것이다. 연탄가마에 처음 불을 지핀 아내의 이름은 이복순(65)씨였다.

### 연탄가마에 매달린 가족의 생계

"그 땐 정말 남편 원망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가게를 시작한 것도, 이렇게 가게가 성장한 것도 돌이켜 보면 남편의 선행 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서로 제 일인양 도와주었거든요."

이씨는 얼굴 가득 웃음을 먹음으며 지난날을 돌이켰다. 처음 빵을 굽게 된 계기는 남편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보다 못해 빵 굽는 연탄가마를 기증하면서부터다. 원래 손썰미가 좋았던 그는 금방 빵 굽는 기술을 익히고 '봉지빵'을 만들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관사 옆에서 빵굽기를 2년여, 67년에 그는 근처에 가게를 내었고 그로부터 또 몇년 후 현재의 위치로 가게를 옮겼다. 정식으로 가게를 열자 소식을 듣고 평소 남편 김화수(70)옹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알음알음으로 알려지면서 온천 고려당은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온천 고려당이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게된 결정적인 계기는 개업 초기 아이스스틱이 커다란 인기를 얻은 데 있다. 당시는 아직껏 양산 아이스스틱 업체가 등장하기 전이라 온천 고려당의 아이스스틱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북 일원에서 명성을 날렸다.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장을 온천동뿐만 아니라 해운대, 반송 등 3곳으로 늘렸고 특히 해운대에는 아이스스틱 공장도 가게를 두어 지점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 때 김옹도 건강이 안좋아 직장을 그만 두고 가게일을 거들었다.

"영감이 건강이 안좋아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같이 일을 하게 되니.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형편도 나아지고 가족의 생계 걱정 없이도 주변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열심히 일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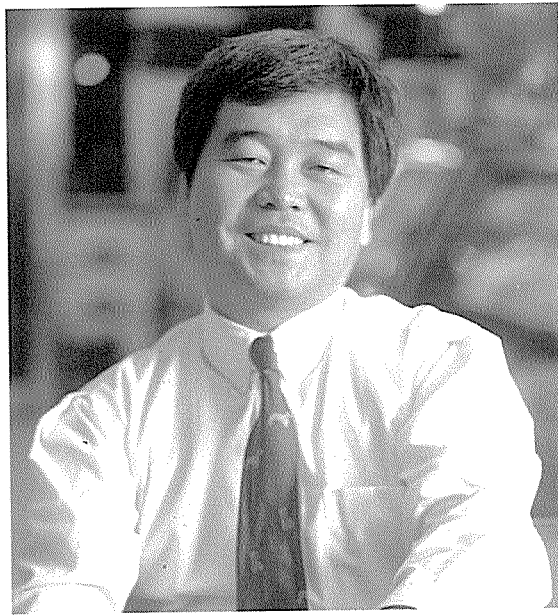


'아이스틱 호황'은 양산업체가 등장하면서 막을 내리고 온천 고려당은 73년 3곳의 아이스틱 공장을 정리하고 그 대금으로 현재의 건물을 인수하면서 제과점 운영에 주력한다. 가게가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고려다방'에서 힌트를 얻어 지은 '온천 고려당'이라는 상호도 77년 부산 지방법원에 정식으로 등록했다. 이때 아이스틱의 뒤를 이어 온천 고려당의 '스타'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팔빙수다. 지금도 온천 고려당에서는 팔빙수가 계절 상품이 아닌 '사철 상품'으로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팔빙수 포스터가 항상 매장에 부착돼 있고 큰 몸집의 제빙기가 매장 한 곳에 톱 버티고 있다. 동래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에게도 근처 금정산을 오르고 내려와 동래 온천에서 땀을 빼고 온천 고려당에 들려 팔빙수 한 사발을 비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을 정도다. 땀을 많이 흘려 갈증이 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변함 없이 사용하는 국산팥과 햅쌀로 만든 찹쌀떡의 맛을 못잊어 하기 때문일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다는 원칙이 고집스레 배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씨의 이러한 원칙은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변함 없이 온천 고려당의 맛을 지키고 있다.

**"영겁결에 선택했지만 이익은 없었다."**

온천 고려당이 1대에서 2대로 이어진 것은 지난 82년. 외아들인 김종환(40)씨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 가게 운영을 이어 받았다. 17년 동안 쉴 틈 없이 움직였던 이씨의 몸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김종환 씨는 "영겁결에 가업을 잇게 되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익은 없었어요. 저희 7남매가 남부럽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가게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시작하여 부모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 가게를



◀ "돌이켜보면 이렇게 가게가 성장한 것은 남편의 선행 때문이었지요."

◀◀ "부모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 가게를 남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남에게 넘길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가업을 잇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때 어머니의 건강악화는 그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전공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완쾌를 기원하며 가게일을 보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생업이었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만 여겨졌던 일이 이제 자신의 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했다. 어렸을 때 가게에 들려 무심코 출출한 배를 채우긴 했지만 무엇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면 통하는 법. 그는 '요기용'이 아닌 '연구용'으로 빵을 먹었고 빵에 관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지식을 습득했다. 지금은 어떤 제품이건 맛을 보면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부족하며 과다한지를 꼬집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일이 바쁠 때는 이복순 씨도 한몫 거든다.





▲원칙이 있다.  
“항상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

▶종일 매장에 있다보니 김종환 씨는 전화로라도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다.

### 힘들지만 긍지와 책임감으로 지킨다

결심을 굳히고 가업을 이은 그였지만 한창 나이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게일에 매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다. 일이 고된 것은 둘째 치고 친구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고 여가도 즐길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가게일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장남이라는 무게가 버거웠다. 그러던 그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여행에서 일본의 기업승계 전통을 보고 나서부터였다. '일류'라는 딱지가 줄줄이 붙은 학벌이지만 몇대째 내려오는 조그만 가게를 긍지를 갖고 이어가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돌아켜보게 되었다. 이제는 앞으로 자식이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하는 눈치를 비출 정도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루 중 일 가게 일에 매달리다 보니 잠이 나야 말이지요. 결혼한 지 10여년이지만 아직까지 영화구경 한 번 못해봤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보이스카우트 지역대대장일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두 번은 야유회나 캠핑에 참여한다. 또한 가게 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찾다가 최근에는 아마추어 무선동호회에도 가입했다. 보이스카우트일에도 필요하고 무선으로나마 많은 사람들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안성맞춤인 셈이다.

온천 고려당이 위치해 있는 건물은 동래에서도 임대료

가 싸기로 유명한 곳이다. 건물주인 김씨가 임대료에 관해서 일언반구도 없어 세입자들이 오히려 임대료를 올려서 받으라고 하는 편이니 세입자들의 세입기간이 보통 10년을 웃돈다. 어김 없이 고장에서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세입자들도 쉽사리 떠나지 않는 마당에 온천 고려당의 직원들은 오죽할까. 인력이동이 거의 없으며 공장장은 10년 동안 줄곧 한술밥을 먹고 있다. 더욱이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 연수도 보통 3년이다.

### 칼바람을 이겨낼 '동래의 지킴이'

온천 고려당은 유흥가에 위치해 있다. 부근에 금강공원 유원지가 있고 일제 때부터 명성을 날리고 있는 온천이 있어 좁은 거리마다 뿔뿔이 갖가지 네온사인 간판이 매우 고 있다. 상권이 좋다보니 몇년 새 제과점이 많이 늘었고 특히 양산 베이커리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온천 고려당 바로 옆에도 양산 베이커리 점포가 들어서 있다. 또한 패스트푸드의 확산으로 다국적 브랜드 체인점도 들어왔다. 전보다 영업환경이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



듯 양산 베이커리의 진출 이후 연중 무휴로 가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김종환 씨는 말한다.

“전보다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30년 가까이 대를 이어가며 제과점을 하다보니 변함 없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군요.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온천 고려당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개업 50주년에는 연탄가마에서 구워 팔던 봉지빵을 만들어 당시 가격대로 팔아보고 싶습니다.”

선대가 베푼 덕행이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다. 온천 고려당이 한 고장에서 30년 가까이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덕행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온천 고려당은 따뜻한 온천처럼 나누는 마음이 아우러져 만들어진 곳이고, '동래의 지킴이'로서 더욱 연륜을 쌓아갈 것이다. 금정산 태줄이 이어져 뜨거운 생명력을 뿜고 있는 동래 온천처럼 그렇게... [출처]

(글/손인수)